충남도교육청, 혁신교육 다양화 모색

충남교육청은 일선 학교와 혁신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공유해 현장 교육의 다양화를 꾀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더 많은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현장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11월 2일 공주대에서 마을교육 활동가와 학부모, 교직원, 지자체 관계자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충남 혁신교육 한마당'을 개최했다.

1부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함께 그리다'와 2부 '충남 학교혁신 함께 돌아보다'로 나눠 진행했다. 1부에서는 충남지역 혁신학교, 학교협동조합, 행복 교육 지구 등이 42개 부스를 운영하며 마을학교 운영과 학교 협동조합 설립, 마을과 함께하는 진로직업 체험지원, 청소년 자치 배움터 운영 등 17개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2부는 5개의 부스 운영과 9개의 분과 모임을 개설해 충남의 여러 수업연구회가 학교 교사와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수업혁신 실천사례를 공유했다.

지난 6월부터 학부모회의 교육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놀이길은 학생들의 놀이 공간 바닥에 그린 다양한 형태의 전통 전래놀이 밑그림을 말한다. 놀이길 그리기에 이어 교사,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전래놀이 연수도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각 학교 학부모회는 소라놀이, 망줍기, 달팽이놀이, 이랑타기, 안경놀이, 고누, 망차기, 8자놀이 등 전래놀이를 학교 공간 곳곳에 그리고 있다. 놀이길 그리기와 전래놀이는 학교 공모 접수 당일 접수가 완료될 만큼 학교와 학부모회가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를 운영하는 도내 초·중학교는 50곳에 이른다.

도교육청은 지역 우수 민간단체를 통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학교에서 할 수 없는 인성교육 체험기획을 확대하고자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과 단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매년 1월 공모 심사를 통해 인성교육을 진행할 단체를 선정해 위탁 사업을 진행한 뒤 연말에 사업 평가회를 열어 성과 분석과 문제점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올해는 돈암서원과 매헌윤봉길월진회 등 8개 민간단체가 도교육청 지원을 받아 인성교육을 했다. 이 교육에는 모두 5천294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돈암서원에서 유생복을 입고 인사 예절, 다도 예절 등을 체험했으며 매헌윤봉길월진회가 운영하는 매헌학교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윤봉길 의사의 애국애족 정신과 협동심을 배웠다. Ⓨ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돈암서원